

IMF 한국 미션 보도자료

- IMF 미션(단장: Joshua Felman,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)은 정례 반기협의
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음
 - 미션은 한국 경제전망과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토론히기
위해서 11.9-17일에 걸쳐 정부와 민간분야 다방면의 인사들을 면
담하였음

- 이러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가 회복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
음
 - 경제활동이 올해 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, 올해 전체에 걸쳐 꾸준히
증가하여 3/4분기에는 강한 성장률을 보임
 - 놀랍게도, 이러한 회복은 거의 2년간 잠자던 민간소비의 회생에 의해 주
도되었음
 - 동시에, 해외 수요(특히 첨단 과학기술 생산품에 대한)가 되살아난 모
멘텀을 잡으면서 수출도 가속화되고 있음
 -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
 - 따라서 올해 3.8%, 2006년에 5%로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함

- 회복은 그러나 아직 시작단계이며 경제의 일부 부문은 여전히 미흡함
 - 특히, 투자가 둔화되고 회복시기가 불명확함
 - 이러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정책은 지속적으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야 함

- 재정정책에 대해서는, 정부가 내년엔 약간의 적자예산을 (사회보장기금을 제외) 목표로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
- 통화정책에 있어,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고 있으므로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해 관망("wait and see") 자세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고 봄

□ 경기 회복이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성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구조 개혁이 필요함

-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중소기업과 금융부문에 중점을 두었음

□ 중소기업의 개혁이 필요함. 많은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과 해외 경쟁의 위협으로 인해 나머지 다른 경제부문에 비하여 계속 뒤쳐지고 있기 때문임
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방면의 전략이 필요함.
- 첫째, 구조조정이 필요함. 현재 확장적인 신용보증제도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음. 이 제도는 일정기업에게 양허성 신용(subsidized credit)을 제공하여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나 다른 기업들이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있음
- 따라서 신용보증액의 증가를 멈추게 하고 지역신용보증펀드의 확장에 반대하는 정부의 계획을 강력히 지지함

□ 둘째,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필요함

- 정부의 서비스부문 규제완화 계획을 지지함. 이것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임
- 그리고 특히 위험 부담이 많은 첨단기술 부문 등 많은 중소기업은 그

속성장 실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, 실패한 기업인이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산자체를 범죄화 하지 않는("decriminalizing")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

□ **한국의 금융부문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이미 상당히 선진화되어 왔음**

- 금융 부문은 한층 더 발전할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.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근로자들이 그들의 퇴직 후를 위해 저축을 하면서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
- 그러나 이런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, 금융부문은 추가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과 혁신을 하도록 장려해야 함
- 이러한 이유로, 규제 완화 전략, 특히 그 중에서도 금융 회사들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외환 시장을 자유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지지함
- 동시에 금융 감독이 이러한 변화들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을 것임. 특히 어떤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던지간에 판매되는 모든 금융 상품들이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하며, 그 결과 금융 회사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("level playing field")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함

□ **결론적으로, 한국경제는 회복중이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청사진이 정부에 의해 개발되고 있음**

-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들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확신함
- 이것이 IMF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임